금주의 법구-〈법구경〉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35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2월 26일) 2021년 4월 7일 수요일



十方은 화장(華藏) 중 바야흐로 봄이다. '봄' 하면 꽃이다.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피는 꽃은 육법공양 중 하나일 만큼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과 함께 값진 의미를 지니고 있다. 더욱이 하 수상한 시절에서 피는 꽃이기에 그 의미가 새삼스럽다. '꽃도량' 통도사 극락암에도 꽃들이 피기 시작했다. 홍교 앞 벚꽃이 도량을 장엄 중이다. 추운 겨울을 지나온 꽃들이 시방을 장엄하는 오늘, 힘겨움으로 가득한 시절을 지나 꽃처럼 환한 시절이 오기를 서원한다. **글=박재완 기자, 사진=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백성욱 금강산 수행, 최초 사부대중 결사"

김광식 교수, 민족사상 15권 기고 논문서 주장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930년 금강산 입산 10년 수행
수행과정·내용확인 자료 발굴
표훈사발행 잡지인 〈금강산〉서
백성욱 금강산 수행 내용 기록
공동체명칭 '선불장'서 첫 확인

근현대 불교 선지식인 백성욱(1897~1981) 박사의 10년 금강산 수행의 전반적인 전모가 확인되는 자료들이 확인됐다. 특히 백성욱 박사의 수행공동체가 자체 규칙을 갖고 자급자족한 최초의 '사부대중 수행결사'이며 그 명칭이 '선불장'임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는 한국민족사상학회에서 발간하는 〈민족사상〉 제15호에 연구논문 '백성욱의 금강산 수행 공동체 역사와 성격'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표훈사가 발행했던 잡지 〈금강산〉을 비롯해 문집류, 구술 인터뷰를 종합해 백성욱 박사가 10년간 진행했던 금강산 수행의 전모를 밝혔다.

그간 백성욱 박사의 10년 금강산 수행은 대중에게도 잘 알려졌지만, 정확하게 언제, 누구와 함께, 어떻게 수행했는지가 연구되지는 않았다. 김 교수는 자신이 발굴한 자료를 토대로 6하원칙에 맞춰 백성욱 박사의 10년 금강산 수행을 조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백성욱 박사가 금강산에 입산한 시기는 1930년이다. 백성욱 박사는 독일 유학을 마치고 1925년 귀국해 1928년 4월부터 중앙불전(현 동국대)에서 강의했고, 7월부터는 불교사 논설부에 근무했다. 1929년 1월 3~5일 열린 승려대회서는 종헌·종법 제정을 주도했다. 하지만 민족운동 성격이 강했던 탓에 일제의 감시를 겪었고, 심신을 안정시키고자 사찰을 순례했다. 그해 가을 오대산 적멸보궁에서 백일 기도에 들어갔고, 이후 서울로 상경했다가 1930년 초반 금강산으로 입산한 것으로 김 교수는 봤다.

백성욱 박사의 10년 수행이 마무리된 것은 '일제 탄압'이라는 외부 요인이 컸다. 백성욱 박사가 1974년 〈법시〉에 남긴 회고에 따르면 1938년 왜경이 박사를 사이비 종교인으로 몰아 체포했고, 이 같은 이유로 더 이상 수도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김 교수는 "백성욱은 1928년에 금강산 장안사에서 수행을 잠시 했지만, 본격적인 수행은 1930년 5월 무렵부터"라며 "백성욱과 손혜정, 김기룡은 의령 경찰서에서 70일, 진주 검찰청에서 1주일간 구속당했지만 불기소처분으로 금강산으로 돌아왔다. 당시 일제는 백성욱의 수행 공동체를 해체할 것을 명령했고, 그래서 수행 공동체는 1939년 해산됐다"고 밝혔다.

백성욱 박사의 수행 장소는 장안사 말사인 안양암과 지장암이었다. 정확하게는 안양암은 여성 전용 선방이었고, 백성욱 박사는 거처를 지장암으로 옮겨서 정진을 이어갔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초창기는 백성욱 박사의 개인 수행 차원에서 안양암이 활용됐지만, 가르침을 받겠다는 대중이 10여 명으로 늘자 지장암으로 이전했다. 기존 안양암은 수행 도반이었던 손혜정이 이끄는 여성 선방이 됐다"며 "백성욱은 손혜정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양암과 지장암을 모두 관리했다. 안양암과 지장암은 백성욱 수행공동체의 회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백성욱 박사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몇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까. 김 교수에 따르면 백성욱 회상에서 수행한 김기룡은 지장암에 30명, 안양암에 15명이 항시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를 볼 때 10년의 수행기간 동안 수 백명의 인원이 백성욱에게 가르침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행 방법에 대한 재발견도 이뤄졌다. 백성욱 박사는 초기에는 개인 기도에 몰두했지만, 회상에 대중이 늘며 수행 수칙을 정했다. 그는 대중에게 기도, 염불, 간경, 참선을 강조했으며 초기 입산자 모두에게 백일기도를 시켰다. 염불은 〈화엄경〉을 부르게 했다. 경전 공부는 법사인 백성욱, 손혜정의 법문을 듣는 것으로 대체했고, 참선은 조석으로 항상 하도록 주문했다.

대중 일상생활에 수칙도 이번에 새롭게 재발굴됐다. 〈금강산〉 8호(1936)에 게재된 '지장암에서 전해오는 소식'에 따르면 지장암의 일상 생활이 기록돼 있다.

대중은 오전 4시에 기상해 아침 정진을 한 이후 9~10시 일종식 아침 공양을 한다. 오후에는 농사, 땔감 모으기, 운력 등이 이뤄지고 저녁 정진이 진행된다. 여기서 당시 백성욱 박사 회상의 공동체 명칭이 확인되는데 '선불장(選佛場)'이다. 이들은 정진 5시간, 노동 5시간, 설교 3시간, 자유 7시간이라는 공통된 수행 규칙을 갖고 있었다.

김 교수는 "금강산에서의 수행 공동체 생활은 백성욱의 제안과 지침에 의거해 철저하게 실시됐다"면서 "이에 따라 금강산 수행은 선불교적, 결사적 성격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선불장'은 결사 단체"라고 밝힌 김 교수는 "자급자족을 하면서 사부대중이 함께 수행하는 공동체는 백성욱 박사의 '선불장'이 최초이자 유일하다"면서 "이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구니회 6년만에 선학원 대응기구 구성

전국비구니회, 14차 총회서 전담TF 결의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가 산하 기구로 선학원 문제를 전담하는 TF팀을 구성키로 결의했다. 전국비구니회가 선학원 문제와 관련한 공식 논의기구를 구성한 것은, 지난 2015년 선학원 대책위 출범 이후 6년 만이다.

전국비구니회는 3월 29일 제14차 정기총회를 열고 정보보고 안건으로 선학원대책위원회 활동 보고를 상정한 데 이어, 선학원 문제와 관련한 전담기구 구성을 결의했다.

이날 전국비구니회 감사이자 조계종 선학원대책위원회 위원인 심원 스님은 "종단과 선학원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바로 비구니스님들"이라며 "비구니스님들의 고충 해결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전국비구니회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심원 스님에 따르면 현재 조계종 사찰 중 선학원 분원으로 등록된 수는 360여 개, 이 중 명의등록까지 포함하면 약 600개에 달한다. 스님은 "전국비구니회 소임자 스님들은 물론 소속 비구니 스님 중에서 선학원 분원 소속이거나 도제 스님들이 상당히 많다"며 "선학원 문제가 현재 드러난 현안이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전국비구니회 존속을 위협하는 요소로 잠재돼 있다고 보여진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분원 상당수가 비구니 사찰들"
비구니회 존속 위협 잠재 요소
4월 30일 수행공동체 결사도

향후 구성될 선학원TF는 종단과 선학원간 관계 속에서 분원 소속 비구니스님들의 입장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 등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회장 본각 스님과 운영위원장, 총무부장 스님이 당연직으로 꾸려질 예정이며, 구체적인 위원 구성은 회장 본각 스님에게 위임했다.

회장 본각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의 소속 사찰이 선학원에 등록된 분원인 경우가 상당히 많기에 선학원 문제는 전국비구니회가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될 사안"이라며 "시도하는 마음으로 종단과 선학원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구니 수행공동체 결사에도 착수한다. 전국비구니회는 4월 30일 비구니 수행공동체 결사에 입재하고 스님들이 함께 수행하고 정진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회칙 제개정과 선거법 제정, 2021년 사업 및 예산심의의 건을 만장일치 의결했다. 또 종무보고의 일환으로 지난해 사업 결과보고와 명사추천 결과보고, 인도 부다가야 보건소 건립 경과보고, 화관 보수 불사계획 등을 보고했다. 또 지난해말부터 올초까지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또 전국비구니회는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후원금 모연 및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 전국비구니회 지회장회가 300만원을 전달했으며, 이에 앞서 봉덕사(주지 혜욱)와 휴휴정사(주지 수경)가 각 100만원씩 전달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백만원력 결집불사

- 부처님 성도지 인도부다가야에 한국사찰 분황사를 건립합니다.
-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를 건립합니다.
-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건립합니다.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를 건립합니다.
- 불교 병원·요양원을 건립합니다.
-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기금을 마련합니다.
- 경주 남산 열암곡에 넘어져 계신 마애부처님을 일으켜 세웁니다.
- 10.27 법난기념관을 건립합니다.
- 위례신도시 종교시설을 건립 합니다
- 어려운 이웃을 위한 가칭)나눔기금을 조성합니다.

원력과 발심으로 한국불교 중흥을 이룹시다.
지금, 불자님의 참여가 한국불교의 희망입니다.

백만원력결집불사는 원력보살 100만명의 원력으로
한국불교의 내일을 여는 운동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마침내 큰 바다가 되듯이
우리불자 한명 한명의 원력을 모아서
여러분의 각 가정과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불법은 널리 전해질 것입니다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조감도


계룡대 호국 홍제사 조감도


세종시 광제사 대웅전 조감도

대한불교조계종

모연동참안내
- 매일 100원을 발우저금통에 보시
- ARS 060-700-0012(1통화,3천원)
- 후원계좌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예금주 : 재) 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 문의 02)6273-0108,0109

백만원력결집불사 모연은 아름다운동행을 통해서 기부됩니다.
재)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이 설립한 공익기부재단입니다.

www.buddhism.or.kr